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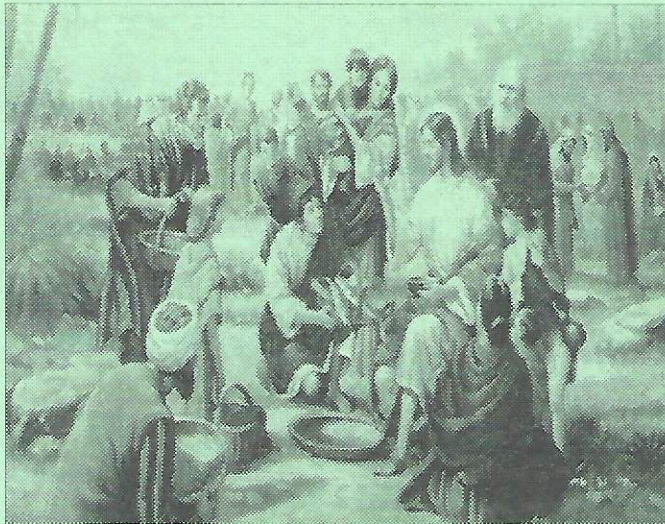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17주일

제35권 35호(나해) 2015년 7월26일

[묵상]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빵을 쪼개어 자신의 몸으로써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그 빵을 먹음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일치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아먹는 성체성사의 원형이며
이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기에
생명의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의 모습이
오늘 복음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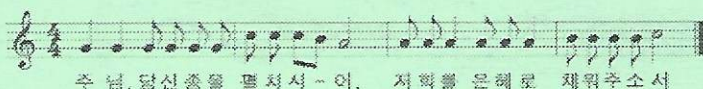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김철웅 베드로 & 김순선 아네스
	(생)유광수 바오로 사제 & 정숙희 헬레나 & 장종애 요안나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권분남 콜롬바, 이용식 베드로, 김상진 토마스, 이종수 마틴,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고준희 제임스, 이용수 요셉, 전시웅 요한, 도날드 브라운, 박수경 스테파노, 김영식, 김인숙 마리아, John Green, 현시영 요셉
	(생) 박희자 마리아, 김은 안나, 정경옥 아오스딩, 김양금 안나, 이규상 클레멘스 & 이민상 요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열왕기 하(Kings) 4,42-44

화답송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4,1-6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요한(John) 6,1-15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마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417	233	178
봉헌	목마른 사슴	257	270
성체	352	291	279
파견	찬양하세	227	233

순종적인 마음을 지닌 레아

라헬의 언니 레아는 무척 온순하고 순종적이었습니다. 남편 야곱의 지나친 편애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식을 키웠던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들을 더 많이 낳은 레아가 행복했을 테지만, 여자로서는 불행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생 라헬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남편을 바라보는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나름대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세 아들을 낳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30,14-16

첫 아들을 얻은 후에도 야곱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아들 시메온과 레위를 낳고는 남편의 사랑을 차지할 것이라고 흐뭇해 했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아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보리 추수 때에 큰아들이 밭에서 따온 임신 촉진제였던 합환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생 라헬은 레아에게 달려와 뭐라고 이야기 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30,14-24

레아는 집요한 노력으로 여섯번째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잊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걸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그녀의 노력은 상상만 해도 눈물겨울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깊은 상처를 갖고 있었고, 원망과 섭섭함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레아가 낳은 여섯명의 아들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29,15-30,20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했던 결혼생활에서 그녀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끈질긴 노력은 결국 좋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훗날 야곱은 죽으면서 레아 곁에 묻어줄 것을 유언합니다. 남편 야곱 역시 레아의 성실함과 끈기, 순종적인 마음을 인정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불행과 고난을 노력과 끈기, 그리고 신앙으로 극복했던 레아,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께서 묻히셨고, 그곳에 ()과 그분의 아내 레베카께서 묻히셨다. 나 도 ()를 그곳에 묻었다.”(창세 49,31)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나의 ()을 보아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 해 주겠지.” 하면서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다.(창세 29,32)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대답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많은 군중을 보시면서 먼저 물으십니다.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요한 6,5)

제자 필립보는 계산 능력이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났나 봅니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이백 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요한 6,7)

이것은 노동자 200일 임금이니 얼마쯤 될까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 안드레아는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요한 6,9)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요한 6,10) 우리는 잘 모르면서 자기 머리 속에 있는 짧은 지식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둘러대면서 대답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여깁니다. 용산 참사 때도,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해서도,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나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스스로 대답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 자신이 피해를 당하는 차례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나라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온 국민이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고통이 더이상 남의 일이라고 눈감아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도 내놓고, 부족한 음식 앞의 감사기도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턱없이 부족한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겸손한 모습이 평범한 우리의 눈에는 놀랍기만 합니다.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믿을 안에서 주님의 손길이 있어질 때, 오늘 복음의 기적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고통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 아닌가요? 하느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지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눈길로 많은 사람을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면서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포기하면, 그 불행과 고통은 스스로에게 닥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그 적은 빵과 물고기를 들고 먼저 하느님께 감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들의 적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느님께 감사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께서 작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풍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길로, 오늘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인간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보잘것없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적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느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럴 때 모두 배불리 먹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맛दार된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주수옥신부 / 대방동성당주임

매일의 힘

지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올려둔 돌들이 탑이 되었고
카프카는 매일 꾸는 꿈을 기록했는데
그게 책이 되어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것 아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걸었더니
산티아고 800킬로 순례길 끝에 달더군요.
이것이 매일 매일의 힘이겠지요.
일상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이영 아네스 -

이번주 전례봉사회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박희자 마리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도복 1,2반

다음주 전례봉사회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손석 스테파노	정광미 프란체스타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박진수 스테파노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제4회(2015~2016학년도) 수혜자 발표

가톨릭 자녀들을 위해 뜻있는 익명의 교우가 봉헌한 장학 기금으로 설립된 백삼위장학회(회장 이재정 사도요한)가 올해로 세번째 수혜자를 배출했습니다. 선발된 후보자들은 학업성적의 우수성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성당 및 외부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위하여 생활하는 신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 선발된 수혜학생 9명 : -가나다 순

김명선(Jenobepa), 김승미(Veronica), 김지수(Helena) 박 안젤라(Angela), 성기완(Priscus), 신희령(Alicia), 이병도(Alexander), 이어진(Michael), 한혜림(Katherine)

장학증서와 장학금 수여식 : 8월2일(주일) 낮 11시 미사 중

◆한국의방선교회 후원회 감사미사

한국의방선교회 후원국장 나영호 베드로 신부님께서 오늘주일 11시 미사에 백삼위 성당후원 감사미사를 봉헌해주십니다.

◆오늘주일 11시 미사에서 구역장, 반장, 제단채장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성모회에서 김치병을 모으고 있습니다.

큰병, 작은병(더 많이 필요)이 있으시면 부엌 옆 작은 방에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5년 제28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오늘 주일 화전미사

"그렇게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것이다." (루카 10: 28)를 주제로한 남가주 성령 쇄신대회가 오늘오후 6시까지 이스트 LA 칼리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참가자 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참가중입니다.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4일(금)~26일(주일)
-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 교장 ☎(310)709-3343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대상 : 초,중,고등부
- 자격 : 영어 가능한 남녀교우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장 ☎(310)709-3343

◆주일학교 복사단 모집

제대에서 복사 봉사를 할 수 있는 성실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 대상 : 주일학교에 등록된 첫 영성체를 한 학생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장 ☎(310)709-3343

◆백삼위 한국학교 교사 모집

2015-16년도 백삼위 한국 학교에서 함께 봉사하실 교우 분을 모집합니다.

- 대상 : 초급 과정 교사, 보조교사
- 문의 : 최이원 ☎ (213)700-9399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7월26일(주일) * 토남3반 : 콩나물,무생채 비빔밥 (\$3)
- 8월은 한달간 친교 점심 나누기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김교복 김대우 김성택 김여순 김영덕	성전헌금	강인모 김교복 김대우 김영덕 김원호 김정희
	김원호 김인성 김재영 김정희 김찬구 김현숙		김찬구 김현숙 김효진 나경흠 박광자 박정자
	김효진 나경흠 박광자 박운모 박정자 반정미		배재일 신순철 윤희동 이병우 이숙화 임 순
	배재일 신순철 윤희동 이근태 이병우 이숙화		정남형 차병용 최원석 황지영 이크리스
	임 순 장은희 전동훈 정남형 정인옥 차병용		
	최원석 황지영 이크리스		
	합계:\$4,400		합계 : 1,665
주일미사 헌금 : \$2,914		감사헌금(익명) : \$500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 1회 차세대 세미나

- 날짜: 2015년 8월 15일(토) 9a.m~8:00p.m 예정.
- 장소: Red Lion Hotel, Anaheim
- 등록마감: 7월 14일
- 참여 대상: 현재 한글학교 보조교사(9학년 이상)와 한글학교 졸업생 중 한글학교 교사에 관심 있는 사람 (전 과정 참석 시 수수료증 발급)

◆한국학교 SAT 시험 준비반 및 여름 특강 중입니다

- 기간: 8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 시간: 9:30 am~ 12:30 pm
- 문의: 한국학교장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세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미주 평의회

- 제목: 봉헌을 위한 준비특강
- 대상: 전신자
- 준비물: 묵주, 성가책 ☎(310)384-3289
- 일시: 8월 1일 (토) 오후 12:00~6:00
- 회비: \$5
- 강사: 김광태 야고보 신부님(전주교구 사목국장)
- 장소: 성바실 한인 천주교회 본당 지하
637 S. Kingsley Dr. Los Angeles 90005
- 문의: 이정화 헬레나 ☎(323)899-3202

◆이나시오 영신수련에 따른 침묵피정

- 일 시: 7월 31일(금) ~ 8월 2일(주일)
- 지도신부: 하태수신부(예수회)
- 참가비: \$270(독방, 숙식제공)
- 신청마감: 7월 17일, 선착순 18명
- 장소: Prince of Peace Abbey
650 Benet Hill Road
Oceanside, CA 92058
- 문의: 정도로테아(323)937-2083, (818) 321-9505
진글라라(818) 317-6022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안내(9개월간)

- 일 시: 2015년 9월 ~ 2016년 6월
- 주관처: Loyola Institute for Spirituality
- 장소: 로올라 영성센터
480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전 아네스 (213)507-1144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박영희 아가다 422-1119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구역/정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이태옥 아가다 991-4838 7/14(화) 오후 6시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이근테 세르지오 871-0787 7/25(토) 오후 5시 토런스파크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560-7120 7/17(금) 오후 7시30분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 크리스티나 490-9662	김주량 요한 490-9662 7/11(토) 오후 6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진영태 요한 909-557-7490 7/11(토) 오후 6시 중국식당
	3	박명순 안나 968-7600	정정현 베네딕다 995-6342 7/7(화) 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박정후 아네스 625-3312 7/19 (일) 12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베레사 634-6923 7/14(화) 오전 11시 강당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김유미 사비나 738-5305 7/11(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정병옥 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404-1607	황지영 안젤라 938-8089 7/19(일) 오전 11시 Delthone Park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1 /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혜영 아네스 749-3151 7/11(토) 오후 7시
P. V. 남정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정훈모 바오로 415-9008 7/10 금 오후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이재준 요한 793-6157 7/18(토)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정지영 프란치스코 503-927-0770 7/26(일) 오후 3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7/14(화) 오전 10시30분 Hesse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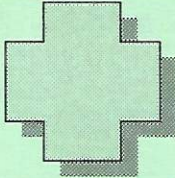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회의	오후 1시
----------	-------

기도의
선물



영광송



글: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그림: 박우철 도밍고

긴 회합으로 배고파진 분이기



어머 벌써
12시가
지났어요.



마침 기도는
짧은 '영광송'으로
끝내고 어서 밥 먹으러 가요.

늘 '깜짝 등장'하는 우리 신부님!

영광송이 짧다고 그 의미도 모르고 대충 바치면 안 돼요. 하느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영예를 정성껏 봉헌하는 기도문이 바로 영광송이에요.





깜짝이야.
매날 등장이 놀라우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함을 표현하는 영광송은 크게 두 가지로 봉헌됩니다. 미사 중 시작예식 때 바치는 '대영광송',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작은) 영광송'이 있습니다.

미사 전례 가운데 주일, 축일과 대축일에 바치는 '대영광송'은 일명 '글로리아'라고도 부르는데 성령 안에 모인 교회가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간청하는 가장 오래되고 훌륭한 찬미가입니다. 대영광송을 통해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광명과 희망, 기쁨을 주시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14)



작은 영광송의 전반부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께 인간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것이며, 후반부는 태초에 하느님께서 누리시는 것과 같이 지금도,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도 그분의 영광이 늘 넘쳐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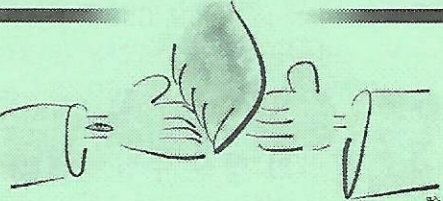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때는 고개를 숙여야 해요.

영광송을 바침으로써 사랑으로 일치될 이루고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친교를 살갓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송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 정성껏 다시 기도해요.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네.

신부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이 삼위를 결코 분리하지 않으면서 각 위격과 친교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부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은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영광을 드리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성부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260항